

“전통문화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원천”

‘전통문화와 불교에 대한 정책’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오는 7월4일 열린다. 이에 본지는 한나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원희룡, 권영세, 홍준표, 남경필, 박진, 유승민, 나경원 의원(〈호수〉) 등 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정책 등에 대해 서면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응한 원희룡, 권영세, 남경필, 박진, 유승민, 나경원 의원의 답변서를 요약 소개하며, 전문은 인터넷 불교신문 ‘www.ibulgyo.com’에서 게재한다.

■ 원희룡 의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전통문화특위 구성

1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의 상당부분을 종교에서 풀어야 한다. 즉 대중을 구제한다는 큰 가르침에 따라 종교지도자간의 폭넓은 교류가 있어야 한다. 2 불교문화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뿌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제는 전통문화의 세계화 차원에서 거당적, 조종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3 전통문화발전특위를 만든 것은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다. 당에서 특위 활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4 불교계의 요구에 따라 역사교육관이 건립된다면 이를 운영, 유지하고 다양한 명예회복사업과 행사를 담당할 법인 설립은 필수적이다. 5 학생은 동과 노동운동을 한 후 현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정처 없이 전국을 여행하다 들린 곳이 사찰이었다. 많은 사색의 시간을 통해 대부분의 고민을 정리했다. 6 정부와 불교계간의 소통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당 대표가 되면 불자인 한나라당 당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권영세 의원 템플스테이는 전통문화체험 사업

1 종교 갈등은 정치가 종교를 사유화하거나 권력화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종교화합을 위해서 국가나 정치영역이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2 템플스테이사업을 종교지원 사업으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체험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

하다. 3 앞으로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가 나서서 명맥을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에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꾸준히 관심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 5 한때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사찰 출입금지조치로 인해 국회의원이 아닌 척하면서 조용히 불공을 다녀온 기억이 난다. 불교종립 중화교를 졸업했으며 최근엔 오대산 월정사와 서울 길상사를 다녀왔다. 6 갈등과 균열로 얼룩진 한나라당에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화합의 정치,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정치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

■ 남경필 의원 10·27 명예회복 정부 자제가 중요

1 불교지도자들이 종교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종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한나라당 대표로서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2 불교문화는 우리 전통문화로서 국가가 잘 보존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전사법개정은 규제완화와 문화재 보호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 3 전통문화발전특위가 요청하면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4 10·27법난문제는 무엇보다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명예회복과 의료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 5 무응답 6 불교의 기본정신은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챙기는 것이다. 1인2표 중 1표를 쇠신그룹 대표인 남경필 후보에게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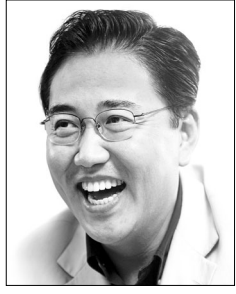
원희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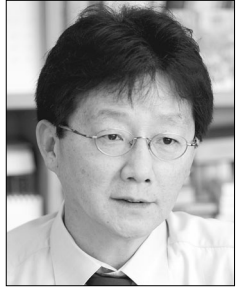
권영세



남경필



박진



유승민



나경원

공통질문

1. 종교간 화합을 위한 방안은?
2.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방안은?
3.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에 대한 지원방안은?
4. 10·27법난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견해는?
5. 불교와의 인연은?
6. 한나라당 불자 당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박진 의원 유·무형 전통문화 상설관리기구 신설

1 정부와 민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범종교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2 전통문화는 우리 삶과 창조의 토대가 되고 미래를 여는 원천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3 발굴되지 않거나 도처에 산재된 유·무형전통문화를 종합 관리하는 상시적인 기구를 창설하겠다. 또한 유네스코 등재 등을 적극 추진해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 달성에 앞장서겠다. 4 최근 혜성님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을 보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느꼈다. 종단의 뒷받침과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이 절실하다. 5 지역구인 종로구의 조계사와 묘각사 등을 주말에 찾아 주지스님을 만나 뵈고 있다. 또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적극 알리고 있다. 6 계파로 얼룩진 당파싸움을 그만두고 당원들간의 자비와 관용의 정신에 기초한 화합이 도모되길 기원한다.

■ 유승민 의원 불교유산=역사·자산 ‘이념’ 개입될 수 없어

1 타종교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종교지도자가 준엄하게 꾸짖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지도자들도 종교편향이 일어나지 않게 정책과 예산지원에 보다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2 불교유산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적 소중한 자산이다.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종교나 이념이 개입될 수 없다. 3

당 대표로서 전통문화발전특위에서 불교계가 원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 4 10·27법난 명예회복 사업과 역사교육관 건립사업이 예산배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 더 관심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 5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지금은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 회원으로서 전통사찰 보존과 템플스테이 예산 등 불교계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6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여당과 불교계간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불교계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불교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 나경원 의원 전통문화 특위 대책 전폭적인 지원할 것

1 정치권에서는 특정종교에 편향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종교와 문화의 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선 안 된다. 2 불교문화를 보존하는 일은 곧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전통문화에 대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특위에서 제시된 대책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법안 변경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전사법 개정도 적극 공감하며 국회통과를 돕겠다. 4 위원회가 제대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10·27법난 역사교육관건립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지원돼야 한다. 5 불교신자인 어머니 따라 어릴 적 아침마다 절에 찾아가 예를 올리곤 했다. 그 덕분에 지금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한다. 6 한나라당이 단결과 화합의 정신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은 지난 6월28일 총무원장 접견실을 방문, 자비나눔과 승가교육 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군중교구장 자광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영조스님. 신재호 기자

자비나눔·승가교육진흥 일조 송광사, 기금 4000만원 전달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이 자비나눔과 승가교육 기금으로 4000만원을 전달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은 지난 6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총4000만원을 건넸다. 영조스님은 아름다운운행을 통해 일본 지진피해 위령제 지원금 2000만원,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기금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승가교육진흥위원회에 승가교육진흥기금 1000만원을 전달

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여러모로 어려운 본사의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큰 기금을 쾌척해줘 고맙다”면서 “큰 힘이 된 만큼 불사에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은 “호남지역 교구본사로서는 적지 않은 기금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적어 부끄럽다”면서 “여러 불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신행단체의 패러다임 변화



현장에서

반년여 동안 신행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저런 신행단체들을 만났다.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계층포교조직이다. 이들은 불교정화운동 이후 정법 실현의 기틀을 다지던 조계종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성장한 불자들의 모임이다. 청년불자의 결집은 1980년대 민주화 열풍 속에서 절정을 맞았다. 그러나 결국 제행무상이다. 민주화 담론이 떠나간 자리를 신자유주의가 차지하면서 공동의 의제는 열여졌다. 피안의 이념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코앞에 닥친 생업에 고개를 숙였다. 1990년대 초중반 무려 270개가 넘었던 대불정 산하 지회는 현재 사실상 80여개 남짓으로 줄었다. 각 대학 불교학생회에선 신입생이 학기 초에 한 두 명이라도 들어오면 풍작이라고 여긴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극단적 개인주의가 남긴 현상으로 보인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집한 어느 불교여행 동아리에 놀랐던 적이 있다. 합법적인 구속과 억압이 일상화되고, 남과 신명을 다해 경쟁할 것을 강요받는 현대인들이, 중도(中道)와 불이(不二)를 말하는 불교를 찾는 일은 숙명에 가깝다. 조계종은 몰라도 불교는 알고, 불교는 몰라도 사찰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늘어나는 추세다. 마음 맞는 이들끼리 모여 불교를 배우고 누린다. 신앙이 아닌 문화와 기호(嗜好)로서의 불교, 신행단체의 패러다임 변화는 분명해 보인다. 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며 ‘종도’로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자성과 해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상실의 시대’가 던진 화두 가운데 하나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템플스테이



불교정화의 씨앗이 움튼 곳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산 **대승사**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8번지
www.대승사.kr 전 화 (054)552 - 7105 FAX (054)554 - 0107

자연환경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사찰에서의 하루는 아침예불 종성을 들으며 깨어나서 맑은 음식으로 공양을 하고 단정히 앉아 마음을 비우는 참선을 통해서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 나갑니다.

때로는 고즈넉한 숲길을 산책하면서 일상의 집착을 잠시 벗어나기도 하고, 차한 잔을 음미하면서 서로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템플스테이는 이렇듯 자연과 하나 되는 마음 자세에서 본래 내 모습을 찾는 일입니다.

- 돌탑쌓기
- 수제차 두기
- 도자기 체험
- 발우공양
- 예불 및 108배
- 야간산행
- 참선
- 산약초 재배 체험
- 스님과의 대화
- 운력